

# 2 일차

##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아시아 사회에서 강한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동아시아 사회의 사상적 기반인 유학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와 유학 사상,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진(先秦)유학\*의 경전에 나타난, 유학자들이 인간을 파악하는 기본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關係體)로 파악했다. 이들은 인간을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남편과 아내, 어른과 아이,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아, 사회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개인을 사회관계 속의 '역할·의무·배려의 복합체'로 보는 입장으로 이어졌고, 유학자들은 개인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회 행위의 원동력이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행위의 최종 목표를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다음으로 유학자들은 인간을 능동적 주체자(主體者)로 파악했다. 이들은 인간 스스로가 도덕의 주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를 삶 속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유학자들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도덕 인식과 실천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유학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와 감정을 덕에 맞추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유학자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찾으며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학자들은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可能體)로 파악했다. 유학자들은 인간을 누구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이 덕을 사회생활에 실천하여 군자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 보고 있다. 또한 유학자들은 개체로서의 인간을 '과정적이고 가변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배움을 통해 이를 개선함으로써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유학자들이 자기 수련을 통해 도달하려는 최종 목표인 성덕(成德)은 자기 혼자만 도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도를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은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타인의 성덕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도덕성과 사회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선진유학 :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까지의 원시적 확립기의 유학.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이 중심이 됨.

1. 위 글에 나타난 유학자들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거나 군자가 될 수 있다.
- ② 인간의 존재 의의는 사회관계와 무관한 것이다.
- ③ 인간은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덕을 이룰 수 있다.
- ④ 인간의 사회 행위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한 것이다.
- ⑤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도덕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2. 위 글의 '유학자'가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에게 제기했을 의문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인들 각자가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라고 보아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독특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인이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추구하는 일을 중시하며 개인은 안정적이고도 고정된 속성을 갖춘 실체라고 인식하였다.

- ① 개인들 각자가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라는 사실을 도의시한 것은 아닌가요?
- ② 인간은 욕구와 감정을 억제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게 욕망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 ③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역할보다 개인에 대한 사회의 의무와 역할을 소홀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④ 인간은 능동적 존재이므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요?
- 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타인과의 조화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요?

3.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소인은 모든 일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만, 군자는 모든 일의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한다. - 『논어(論語)』

ㄴ. 인(仁)의 핵심은 어버이를 모시는 것이고, 의(義)의 핵심은 형(兄)을 따르는 것이며, 지(智)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깨달아 이를 버리지 않는 것이고, 예(禮)의 핵심은 이 두 가지를 조절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 『맹자(孟子)』

- ① ㄱ에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군자'의 모습을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
- ②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ㄱ의 '군자'는 '소인'이 스스로에게서 책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
- ③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ㄱ의 '소인'도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어.
- ④ ㄴ에서 '인(仁)', '의(義)'의 핵심을 부모·형제와의 관계에서 찾는 것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파악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ㄴ에서 '예(禮)'의 핵심이 '인(仁)', '의(義)'를 조절하고 꾸미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도덕의 실천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능동적 주체자'로 보는 입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4. ㉠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오늘은 끝장을 보고 말겠다고 다짐하였다.
- ② 그들은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 ③ 아내는 어머니께서 주무실 자리를 보고 있었다.
- ④ 결국은 손해를 보고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 ⑤ 환자의 상태를 좀 더 보고 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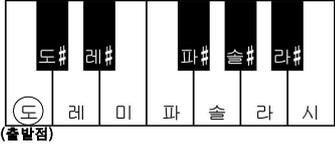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에서 화성이나 멜로디가 하나의 음 또는 하나의 화음을 중심으로 일정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성(調性)이라 한다. 조성을 중심으로 한 음악은 서양음악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음악가의 열망이 무조(無調) 음악을 탄생시켰다.

무조 음악에서는 한 옥타브 안의 12음 각각에 동등한 가치를 주어 음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무조 음악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조성이 주는 체계성은 잃게 되었다. 악곡의 형식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뼈대가 흔들린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조 음악이 지닌 자유로움에 체계성을 더하고자 고민한 작곡가 쇤베르크는 ① 12음 기법이라는 독창적인 작곡 기법을 만들어 냈다.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은 12음을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기본 음렬(音列)에 이를 '전위', '역행', '역행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세 가지 음렬을 더해 악곡을 창작하는 체계적인 작곡 기법이다.

기본 음렬은 작곡가가 곡을 만들 때 12음을 자신의 의도대로 처음 배열한 음렬을 말한다. 기본 음렬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12개의 서로 다른 음을 한 음의 반복도 없이 원하는 순서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 기본 음렬을 구성할 때는 중요한 음이나 중심이 되는 화음 없이 12음 각각에 동등한 자격을 ㉠ 주어야 하며, 구성된 후에는 배열된 음들의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림]

12음 기법은 기본 음렬을 한 번 파생한 '역행'과 '전위', 전위한 음렬을 다시 역행하여 배열한 '역행 전위'의 방법으로 음렬을 구성한다. 역행은 기본 음렬의 12음을 거꾸로 배열하는 방법인데 [그림]의 '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기본 음렬을 '도-도#-레#-...-라-라#-시'로 정했을 때, 이것을 거꾸로 '시-라#-라-...-레#-도#-도'로 배열하는 것이다. 전위는 기본 음렬 속 첫째 음을 출발점으로 하여 변화하는 음의 위치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이를테면 기본 음렬 속 첫째 음이 둘째 음, 셋째 음으로 이동할 때 '도-도#-레#'으로 1도씩 상향하여 이동했다면 전위 음렬에서는 [그림]의 출발점 '도'에서 '도-시-라#'으로 1도씩 하향하여 배열되는 방식이다. 전위의 출발점은 기본 음렬의 첫째 음과 같지만 둘째 음부터는 기본 음렬의 음의 진행 방향과 반대의 방향으로 배열된다. 마지막으로 역행 전위는 기본 음렬을 전위한 후 그 음렬을 다시 역행시켜 배열하는 방법이다.

5.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발생 배경을 바탕으로 대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대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새로운 이론을 통해 대상의 발전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6. ①으로 하나의 작품을 작곡할 때,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2음 모두에 동등한 가치를 두어야 한다.
- ② 기본 음렬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 ③ 조성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 음렬을 구성해야 한다.
- ④ 기본 음렬을 상황에 따라 다시 설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⑤ 기본 음렬과 기본 음렬을 파생한 음렬을 활용해야 한다.

7. <보기>는 '12음 기법'으로 기본 음렬을 배열한 후 파생시킨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 : 기본 음렬



\* b(제자리표) : 악보에서 임시표인 #, b 등의 효력을 없애고 제자리로 돌리는 표

- ① B는 A를 역행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것이다.
- ② C는 A를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것이다.
- ③ D는 C를 역행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것이다.
- ④ B와 C는 A를 각각 한 번씩 파생시킨 것이다.
- ⑤ C와 D는 B를 각각 한 번씩 파생시킨 것이다.

8. 문맥상 ㉠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1점]

- ① 부여(附與)해야                      ② 수여(授與)해야
- ③ 위임(委任)해야                      ④ 전가(轉嫁)해야
- ⑤ 제시(提示)해야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물건들을 살 수 없는 것은 소득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최적 선택은 주어진 금액 안에서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선택을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으로 설명하고 있다.

편의상 소비자가 X재와 Y재라는 두 상품만을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자가 구입하는 두 상품의 수량적인 구성을 상품 조합이라고 한다. 다음 표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X재와 Y재의 상품조합들을 나타낸 것이다.

상품	상품조합	A	B	C	D	E
X재		1	2	3	4	5
Y재		12	8	5	3	2

위 표의 각 조합 A~E의 구성을 보면 소비자는 X재를 얻기 위해 Y재의 소비량을 줄여 동일한 만족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X재 소비를 1단위 증가시킬 때 감소시켜야 하는 Y재의 양을 한계대체율이라 한다. 위 표에서 한계대체율의 변화를 보면 소비자의 선택이 A→B→C→D→E로 이동해 감에 따라 X재를 얻기 위해 감소하는 Y재의 양이 같은 개수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4→3→2→1개씩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어떤 상품의 보유량이 많으면 그 상품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소비자의 경향을 보여준다. 즉, Y재가 많을 때는 X재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Y재를 더 많이 내놓고, Y재가 적을 때는 X재를 얻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 Y재를 적게 내놓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품 교환 방식으로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조합들을 가로축은 X재의 양을, 세로축은 Y재의 양을 표시하여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무차별곡선’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는 한 무차별곡선 상에서는 같은 만족을 느낀다. 그런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무차별곡선은 여러 개가 그려질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상품에 대한 한 소비자의 여러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서로 다른 만족수준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소비가 많아질수록 만족수준이 높아 지므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 중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의 가장 높은 만족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에는 항상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한이 있다. 소득의 제한 안에서 편의상 X재와 Y재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연결해 놓은 선분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만족이 높은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한 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소득의 변화와 재화의 가격 변화에 따라 최적점의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13.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가격이 변하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지점이 달라진다.
- ② 무차별곡선에는 상품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포함되어 있다.
- ③ 소비자들의 최적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 ④ 무차별곡선은 소득의 제한 안에서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상품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정도에 따라 무차별곡선은 여러 개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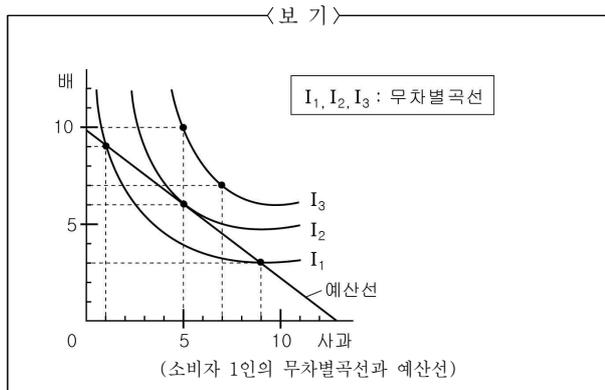
14.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X재가 불펜, Y재가 연필인 한 무차별곡선에서 소비자가 불펜 3개와 연필 8개를 살 때와 불펜 4개와 연필 5개를 살 때 같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자. 이때 불펜의 소비가 3개에서 4개로 증가하면 한계대체율은 3이 된다. 또한 같은 무차별곡선 상에서 불펜의 소비가 4개에서 5개로 1단위 증가하면 한계대체율은 3보다 작아지게 된다.

- ① 불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불펜의 상대적인 중요도도 높아지겠군.
- ② 불펜과 연필을 살 때는 한계대체율이 가장 작을 때 만족도가 가장 크겠군.
- ③ 한계대체율이 3보다 크다면 불펜의 개수가 연필의 개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④ 한계대체율이 작아지는 것은 연필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 ⑤ 불펜과 연필로 조합된 무차별곡선 상에서 불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한계대체율은 증가하겠군.

1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래프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과 5개와 배 6개를 사는 것이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다.
- ② 사과 9개와 배 3개보다 사과 1개와 배 9개를 살 때 만족도가 크다.
- ③ 사과 5개와 배 10개를 사거나 사과 7개와 배 7개를 살 때 만족도는 같다.
- ④ 사과 5개와 배 6개를 사는 것보다 사과 7개와 배 7개를 살 때 만족도가 크다.
- ⑤ 사과 5개와 배 10개를 사는 것보다 사과 9개와 배 3개를 살 때 만족도가 작다.

**빠른정답.**

2	5	1	2	1
4	4	1	2	5
2	3	4	4	2

[1~4] (인문) 조공호, 「선진유학사상의 심리학적 함의」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의 ‘이들은 인간을 ~ 사회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설명으로 보아 인간의 존재 의의가 사회관계와 무관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의 ‘이 덕을 사회생활에 실천하여 군자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유학자들은 인간을 누구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여러 가지 사회 행위의 최종 목표를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겼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즉 유학자들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도덕 인식과 실천이라고 본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자료에 대한 의문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서 ‘자유주의 사상가’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 및 독특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추구하는 것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이 글의 ‘유학자’는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학자’가 ‘자유주의 사상가’에게 제기했을 의문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는 타인과의 조화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요?’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① 개인들 각자를 사회 구성의 궁극적 단위로 본 것은 이 글의 ‘유학자’가 아니라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② 인간의 욕구와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가 아니라 이 글의 ‘유학자’이다. ③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와 역할을 중시한 것은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가 아니라 이 글의 ‘유학자’이다. ④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한 것은 이 글의 ‘유학자’가 아니라 <보기>의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3. [출제의도] 자료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3문단의 마지막 문장으로 보아,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군자의 모습은 인간을 ‘능동적 주체자’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의 다섯 번째 문장으로 보아, 군자가 소인 스스로 책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로 파악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네 번째 문장으로 보아, 소인도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을 ‘무한한 가능체’로 파악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인’, ‘의’의 핵심을 부모·형제와의 관계에서 찾는 것은, 인간을 ‘사회적 관계체’로 파악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도덕 인식과 실천’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보아, ‘예’를 ‘인’, ‘의’를 조절하고 꾸미는 도덕의 실천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능동적 주체자’의 입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유사한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을 포함한 문장은 유학자들이 인간을 군자나 성인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는 뜻이므로, ①은 ‘대상을 판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쓰인 ②가 적절하다. ①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음식상이나 잡자리 따위를 채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8] (예술) 최소해,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음악에 나타난 12음 기법과 무조주의 연구」

5.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12음 기법의 발생 배경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음 기법의 작곡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구체적인 사례가 대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전문가의 의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대상의 발전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확인하기

4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 ‘구성한 후에는 배열된 음들의 정해진 순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진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한 작품 안에서 12음 기법의 기본 음렬은 한 번 배열이 정해지면 상황에 따라 다시 설정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4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12음 각각에 동등한 자격을 주어야 하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기본 음렬은 작곡가가 곡을 만들 때 자신의 의도대로 처음 배열한 음렬을 말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기본 음렬을 구성할 때에는 중요한 음이나 중심이 되는 화음 없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은 12음을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기본 음렬에 이를 ‘전위’, ‘역행’, ‘역행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세 가지 음렬을 더해 악곡을 창작하는 체계적인 작곡 기법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B는 기본 음렬 A를 ‘전위’시킨 음렬이다. B는 출발점이 되는 첫째 음이 ‘솔#’으로 기본 음렬 A와 같고, 기본 음렬 A가 첫째 음 ‘솔#’에서 둘째 음 ‘도#’으로 5도 상향했을 때, B는 첫째 음 ‘솔#’에서 둘째 음 ‘레#’으로 5도 하향하는 음의 진행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B가 기본 음렬 A를 ‘전위’한 전위 음렬임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기본 음렬 A를 ‘역행’시킨 역행 음렬, D는 기본 음렬 A를 ‘전위’시킨 뒤 다시 ‘역행’시킨 역행 전위 음렬이다. 따라서 B와 C는 기본 음렬 A를 각각 한 번 파생시킨 음렬임을 알 수 있다. ① B는 기본 음렬 A를 ‘전위’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음렬이다. ② C는 기본 음렬 A를 ‘역행’의 방법으로 파생시킨 음렬이다. ③ D는 C와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음렬이다. ⑤ D는 B를 ‘역행’의 방법으로 한 번 파생시킨 음렬이나, C는 B와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음렬이다.

8.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상 의미 파악하기

㉠의 '주어야'의 문맥상 의미는 '사물에 자격이나 가치를 붙여 주어야'이다. 이는 '부여하다'의 의미인 '사람에게 권리, 명예, 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 의의 따위를 붙여 줌'과 의미가 통한다. 그러므로 '주어야'는 '부여해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9~12] (과학) 췌해미 외, 「21세기 영양학」

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마)의 세 번째 문장에서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것은 불포화지방산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의 두 번째 문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나)의 여섯 번째 문장, (다)의 여섯 번째 문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시각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하기

A와 B는 포화지방산 분자와 관련된 그림이며, C와 D는 불포화지방산 분자와 관련된 그림이다. A는 포화지방산의 탄소 단일 결합 상태를, C는 불포화지방산의 탄소 이중 결합 상태를 보여준다. 또 B는 포화지방산 분자 2개가 결합하는 모습을, D는 불포화지방산 분자 2개가 결합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D의 지방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먼 것은 탄소끼리의 이중 결합 때문에 나타난 것이므로 단일 결합 때문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다. ① A의 탄소 단일 결합 부분은 C의 탄소 이중 결합 부분과 비교할 때, 수소가 탄소 당 하나씩 더 결합하므로 A에는 수소가 더 많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B의 포화지방산 분자들은 일렬의 형태로 분자들끼리 단단하게 결합하므로 녹는점이 높아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다. ③ B의 포화지방산 분자들은 D의 불포화지방산 분자보다 결합이 단단하므로 녹는점이 높다. ④ C의 결합으로 분자에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 불포화지방산 분자들이 D에서처럼 상대적으로 멀리 있게 되어 분자 간 인력이 낮아진다.

11. [출제의도] 내용에 따른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코코넛 유는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으로 빈번하게 섭취하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혈관 내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코코넛 유가 많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면 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①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많으므로 몸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생선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으므로 이 성분이 뇌 구성 요소로 작용하여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다. ④ 들기름의 불포화지방은 피부세포막 형성에 작용하여 노폐물을 배설하고 좋은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⑤ 올리브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은 뇌와 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신경 세포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리브기름을 섭취하면 노화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의 쇠퇴를 늦출 수 있다.

12.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 버터'는 '㉡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이다. 따라서 ㉠ : ㉡는 '㉡를 함유한 ㉠'라는 의미 관계에 있는 단어쌍이

다. '두부 : 단백질'은 '단백질'을 함유한 '두부'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 관계를 갖고 있다. ① 유의 관계 ② 부분과 전체의 관계 ④ 동의 관계 ⑤ 반의 관계이다.

[13~15] <출전>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

13.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무차별곡선은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조합들을 가로축은 X재의 양을, 세로축은 Y재의 양을 표시하여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소득의 제한 안에서 편의 상 X재와 Y재를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연결해 놓은 선분은 4문단에서 예산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① 4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최적점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무차별곡선은 같은 만족감을 주는 상품조합이라는 설명으로 보아, 무차별곡선의 상품조합에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들어가 있다. ③ 4문단에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예산선과 만족이 높은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예산선은 소득의 제한 안에서 최대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조합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 ⑤ 4문단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만족 정도에 따라 무차별곡선은 여러 개가 그려질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14.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A]에서 소비자는 동일한 만족감을 유지하면서 상품 교환을 할 때 상품의 보유량에 따라 상품의 수가 많을 때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여 많이 내놓고, 상품의 수가 적을 때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 적게 내놓게 된다. 따라서 한계대체율이 작아지는 것은 줄어드는 연필의 양이 적어지는 것이므로 그만큼 연필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볼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볼펜의 상대적 중요도는 줄어든다. ② 한계대체율은 한 무차별곡선 상에서 X재가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감소하는 Y재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무차별곡선 안에서 만족감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계대체율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 ③ <보기>의 볼펜 개수가 3개에서 4개로 한 단위 늘어났을 때 연필의 개수는 8개에서 5개로 줄어들어 한계대체율은 3이 된다. 이 경우 볼펜의 개수보다 연필의 개수가 많다. [A]를 보면 X재가 늘어날수록 한계대체율은 감소하므로 한계대체율이 3보다 크다는 것은 X재인 볼펜의 개수가 3개보다 적어질 때이므로 당연히 연필의 개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한계대체율이 3보다 커지게 되면 볼펜의 개수보다 연필의 개수가 더 많다. ⑤ <보기>와 [A]를 통해 알 수 있듯이 X재가 증가할수록 한계대체율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15.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사과 9개와 배 3개, 사과 1개와 배 9개는 모두 동일한 무차별곡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만족도는 같다. ① 예산선과 만족도가 높은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인 사과 5개와 배 6개를 사는 것이 최적 선택이다. ③ 사과 5개와 배 10개, 사과 7개와 배 7개는 모두 동일한 무차별곡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만족도가 같다. ④ 위치가 다른 여러 무차별곡선에서 원점과 멀어질수록 만족도는 커진다. 사과 5개와 배 6개보다 사과 7개와 배 7개가 원점에서 멀리 있으므로 만족도가 크다. ⑤

사과 9개와 배 3개보다 사과 5개와 배 10개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의 접이므로 사과 5개와 배 10개를 사는 것보다 사과 9개와 배 3개를 살 때 만족도가 작다.